

박물관사람들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2006년 가을 | 15호

특집 달항아리 | 박물관 탐방 우암산 자락의 문화쉼터 | 다시 읽는 선비들의 우리문화 사랑 옛 것을 상고하지 못했노라
전시실 산책 삶과 죽음의 길이 예 있으며 | 유물사랑 男根 斷想 | 답사기 그 아름다운 微笑 속에 사무치는恨이
기증유물 문화재는 모두의 것입니다 | 기획전시 찬란한 천년의 빛, 나전칠기 | 신임 국립중앙박물관장
특별전 안내 秋史 김정화-學藝일치의 경지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

思

慕

그대와 마주앉으면
기인 밤도 짧고나

조지훈 (1920-1968)

희미한 등불 아래
턱을 고이고

단둘이서 나누는
말없는 얘기

나의 안에서
다시 나를 안아주는

거룩한 光
그대 모습은

運命보담 아름답고
크고 밝아라

물들은 나뭇잎새
달빛에 젖어

비인 들에 귀뚜리와
함께 자는데

푸른 창가에
귀기울이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
밤은 차고나

마음으로 빛은 달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의 인생을 어렵듯이 짐작할 수 있다. 지난날이 행복했는지, 불행했는지 많은 이야기를 해준다. 도자기에도 삶의 흔적이 스며있다. 신석기시대부터 전 시대에 걸쳐 가장 많은 유물을 가지고 있는 그릇들. 그 자체가 우리민족의 삶이요, 희노애락이다. 특히 조선시대 달항아리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정서와 문화가 고스란히 배어있다.

우리 민족이 항아리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청동기시대 빗살무늬토기부터이다. 농경시대가 되어 정착 생활을 하게 되자 곡식을 저장할 용기가 필요하였다. 삼국시대에 들어서 많은 대형 토기 항아리들이 등장한다. 통일신라 말에 이르러 선종이 유입되고 지방 호족들이 득세하였다. 호족들은 선종의 가르침에 따라 참선을 하고 차를 마시며 수양했다. 처음에는 중국에서 찻잔을 수입하였으나 고려시대에 국산화되었고 청자의 발달로 이어졌다. 순청자, 상감청자로 이어지는 청자는 그릇이기보다 우리 민족의 삶과 예술을 담았다. 완벽한 器形과 화려한 문양은 긴장감을 주는지 고려 말 사회가 어지러워지자 분청자의 독특한 세계가 펼쳐진다. 자유분방하고 익살스런 분청자는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었다. 조선초까지 만들어졌으나 왕도정치를 이념으로 하는 성리학이 자리를 잡자 백자로 대체하게 된다.

15·16세기를 지배한 성리학은 검소함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았고, 깨끗한 이미지의 흰색을 좋아했다. 분청자에서 백자로의 전환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이규경은 『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우리나라는 백자를 선호했는데 임금님 대전에서도 백자를 사용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청결하고 결백함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백자의 흐트러짐 없는 자태는 곧 선비들의 정신을 상징하기도 했다. 청자토보다 순도가 높고 불순물이 걸러진 백토로

고온에서 구워진 백자는 안정감 있고 투명했다. 경기도 광주는 질 좋은 백토와 풍부한 딸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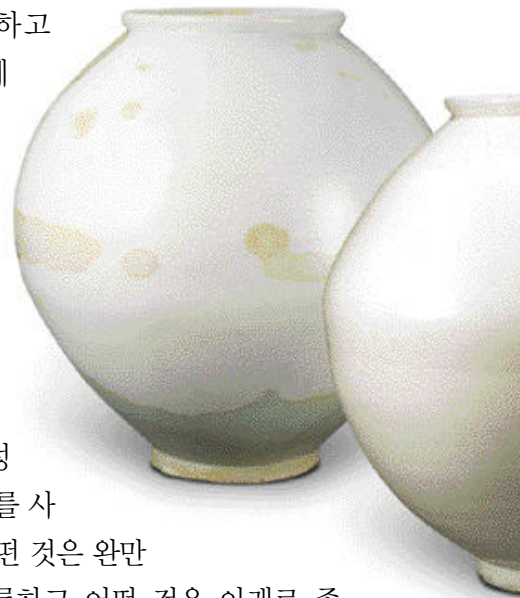


의 산지여서 최상품의 자기를 만들 수 있었다. 또한 수로를 이용할 수 있어 안전하게 한양까지 운반하였다. 처음에는 왕실에서만 국한되었으나, 차츰 일반 서민층까지 백자 사용이 확산된다. 조선 전기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도자기 전체에 문양을 그려 넣었다. 중국에서 들어온 백자는 눈부신 하얀 유약에 문양이 조금의 틈도 없이 그려져 있다. 이런 자기는 여백의미를 중시하는 우리의 미감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점차 문양이 사라지고 간결한 우리만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 냈다. 이 시기의 기형은 입부분이 밖으로 낮게 말아져 있고 폭이 높이보다 커 배가 볼록한 형태를 하고 있다. 무늬 없는 순백지는 雪白을 특징으로 하나 시대가 내려 갈수록 푸른빛이 감돌다 불투명한 백색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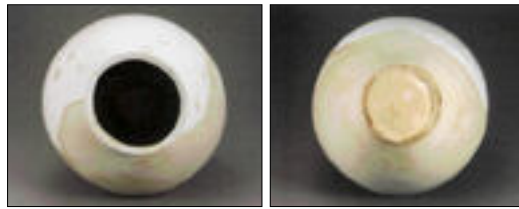
17세기 조선사회는 커다란 변화의 시기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고 정신세계의 중심이던 성리학이 변모한다. 유학을 받아들여 사회의 기반을 이루던 사대부들에게 청나라의 등장은 큰 혼란을 일으켰다. 청은 여진이 세운 나라로 오랑캐의 나라를 대국으로 섬길 수는 없었다. 특히 전쟁을 겪으며 사변적인 관념에 빠져 당쟁과 사회를 반복해온 성리학에 대한 자성론이 인다. 이것이 실학의 발생을 불러온다. 자연 속

에서 자신을 찾고 가장 한국적인 모습을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판소리와 시조·가요 등이 나타났으며 한글 소설이 등장하였고, 정선은 우리의 산하를 진경으로 표현하였다. 이 시기 조선은 문화의 절정기이다. 자의식이 강하고 고고한 선비의 기상은 도자기에도 나타난다. 과감한 생략과 상상을 넘어선 원의 재구성으로, 중국의 화려한 자기보다 간결하면서 우아한 순백지를 탄생시켰다. 이때 만들어진 것이 달항아리이다. 숙종시대부터 약 백년간량 유행한 우리만의 소중한 유물이다.

항아리는 커다란 원 모양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官窯인 금사리가마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달항아리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품성으로 보는 이를 사로잡는다. 어떤 것은 완만하게 둥그스름하고 어떤 것은 아래로 좁혀진 모양이고, 바깥선이 울퉁불퉁한 것도



있다. 좌우대칭도 되지 않는다. 40cm 이상인 것이 대부분이고 가장 넓은 둘레와 높이가 거의 1대1 비례를 이루고 있다. 워낙 크기 때문에 하나의 모양을 짓지 못하고 위쪽과 아래쪽을 따로 빚어 만들었다. 입은 나팔꽃처럼 위로 벌어지거나 낮게 솟아 있고 매끄럽게 내려오는 어깨선을 지나 배 부분에 이르면 대접을 붙인 선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 흔적도 정중앙을 가로지르지 않는다. 항아리에 붙은 입과 굽의 크기와 모양도 제각각이다. 일반적으로 달항아리는 굽이 입보다 좁고 뭉툭해 위가 아래보다 풍만하고, 날렵한 굽은 조금 높은 편이다. 굽과 입이 정중앙에 자리 잡지도 않아 가분수 같기도 하고 좀 불안한 자세이다. 언뜻 보면 미숙한 도공의 솜씨라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관요에는 파기장이라 불리는 감별사가 있어 완성품을 선별하였다. 파기장의 손을 거쳐 나온 달항아리는 사대부들의 사랑방 탁자에 놓여 기품 있는 정신세계를 보여준다. 흔히 백자를 질박하고 꾸밈없으며, 소박하다고 한다. 그 모습에 진정한 멋스러움이 담겨 있다. 자신을 당당하게 밝히는 자신감. 더 이상의 작품은 없다



는 장인 최고의 자부심이다.

이 시기 일본은 중국 도자기와 같은 모양을 만들어 유럽까지 수출한다. 일본이 자기를 상품화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반면, 나만의 것을 찾던 달항아리는 급격하게 없어지고 만다. 주체적인 도도함은 외부와의 단절도 의미한다. 19세기 청과의 교역이 시작되면서 다시 화려한 문양이 나타난다. 코발트의 원활한 수급으로 청화백자에 세련된 무늬가 그려지고, 한 치의 어긋남이 없는 완벽한 기형이 만들어진다.

달항아리가 왜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졌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그 시대부터 일제시대까지 아무도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단지 고려시대 문화의 절정기에 상감청자가 만들어졌듯, 조선의 절정기에도 홀연히 달항아리가 나타났다. 처음 볼 때는 약간 당황스러움마저 일지만 볼수록 많은 이야기가 있고 영혼이 느껴진다. 아마도 충만한 정신세계에서 나오는 너그러움이 아닐까. **7리**

텅 비었으나 가득찬 듯

한국의 어느 박물관을 가도 도자 전시실이 있다. 오랜 시간 꾸준히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풍부한 물량으로도 한 몫을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존재는 ‘달항아리’라고 부르는 無紋의 커다란 백자이다. 세계 어디를 둘러보아도 같은 것을 찾을 수 없다. 순수하게 우리만의 개성이 넘치는 백자이다.

달항아리는 17-8 세기에 걸쳐 백년가량, 짧은 기간 동안 만들어졌다. 비록 생산된 연대는 길지 않지만, 남아 있는 수량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대에 잔잔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음이 틀림없다. 그리고 갑자기 자취를 감추고 사라져버린다. 한참 세월이 흐른 후 한국미를 대표하는 도자라는 평가를 받으며 재조명되기까지, 새우젓을 담은 그릇으로 혹은 술항아리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모습을 다시 드러낸 달항아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내로라하는 심미안들의 극찬을 받는다. 광택도 문양도 없는 하얀색의 커다란 원 모양 항아리, 지극히 단순한 선과 색채에 열광을 아끼지 않는다.

白磁 大壺라는 명칭은 후대에 달항아리로 개칭된다. 그 빛깔이며 선이 영락없는 보름달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한쪽이 이지러진 듯, 좀 모자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전체를 눈에 넣으면 원만하다는

표현이 딱 맞다. 갑갑하지 않고 묘한 안정감을 준다. 그 은은한 빛깔은 달이 아니면 어디다 빗대야 할까. 원형은 꼭 달이 아니어도 대치가 가능하지만 그 오묘한 빛깔은 달리 묘사할 방법이 없다. 스스로 빛을 발하지 않는 무광택의 달항아리는 바라보는 이의 마음에 따라 무수하게 변한다. 차가운 듯 따뜻하고 무거운 듯 가볍기도 하다.

직경 40cm가 넘는 커다란 항아리의 成形은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한다. 태토의 질이 고르지 않아 자꾸 내려앉는 항아리에 이음질까지 하며 도공은 원형을 고집한다. 중앙의 테두리 흔적은 결점으로 보이지 않는다. 애써 감추려 하지 않고 볼 테면 보라는 듯 슬쩍 방치해 둔 것 같다. 아무렇지도 않게 던져놓은 무심한 선이 고르지 못한 면과 잘 어울린다. 실로 기묘한 조화이다. 이렇게 큰 항아리를 매끈하게 단번에 뽑아 올렸다면 오히려 위태위태해 보였을 것이다. 품이 넓

은 두 원이 중앙에서 만나 단단하게 무게중심을 잡고 있는 듯하다.

이 항아리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 후대에 발견된 것처럼 정말 음식을 담는 그릇이었을까? 그런 목적이라면 붙여서까지 억지로 원형을 만들 이유도, 굳이 백색을 고집할 이유도 없지 않을까? 달항아리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구체적인 용도는 알 수가 없다. 크고 풍성한 느낌으로 보아 왕실의 행사에 처음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리고 사대부들까지 비대칭의 항아리를 집안으로 들여 놓는다.

달항아리가 당시 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을 지배했던 성리학의 이념 즉 ‘理一分殊’의 사상이 도자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진리는 하나[理一]이지만 현상계에서 다양한 모습[分殊]으로 구현 된다”는 말이다. “달은 하나이지만 천 개의 냇물에 비추어 다른 달 모형을 만들어낸다”라는 ‘月印萬川’과 합치된다. 수많은 냇가에는 다양한 형태의 달이 비치지만 그 원형은 하늘에 떠있는 하나의 달이 있을 뿐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질서와 법칙은 결국 하나의 보편적 이치 즉 ‘理’로 귀결된다. 사대부



사진 구본창, 국제갤러리 제공

라면 ‘보편된 이치’의 상징인 ‘달’을 집안에 모셔두고 싶은 소망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

달항아리가 유행된 또 다른 이유는 黨爭을 타파하고 蕩平을 바라는 사람들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리라. 16세기 이래 士林은 정치적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 동인·서인, 노론·소론 등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다투었다. 영·정조 시대에 오면 조선사회를 혼란

으로부터 구하려는 탕평책이 대두된다. 탕평은 특정한 정치세력에 혜택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관직과 권력을 균형있게 분배하는 정책이다. 달이 주는 이미지가 균형과 조화, 원만과 화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탕평과 많이 닮아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달을 보며 비는 그 마음, 圓滿具足, 달항아리를 보며 기원했으리라.

이런 소망들이 도공에게 전달되어 항아리를 빚게 했을 것이다. 섬세하거나 화려한 문양도 치밀한 성형도 필요치 않다. 꾸밈도 뽐냄도 없이 도공은 항아리를 빚는다. 물레가 돌아가는 힘이 원형을 만들고 편안한 마음이 색을 입힌다. 모든 모양의 기본은 圓이고, 가장 순수한 색은 흰색이다. 무아의 경지에서 사심 없는 영혼이 본질을 쏟아낸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극히 자연스런 항아리는 이렇게 탄생한다. 도공도 이를 감상하는 선인도 어찌 다를 수 있겠는가. 어느 시인의 말처럼 '텅 비었으나 가득 찬 듯한' 달항아리를 보며 현실의 자잘한 불만을 날릴 수 있었으리라. 以心傳心이 따로 없다.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들은 대부분 懷古의 이라는 전제 아래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달항아리는 전혀 예외적인 존재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대를 뛰어넘는다. 아주 오

래된 듯 깊이감이 있으나 모든 것을 버린 초현실적인 작품처럼 보인다. 자유분방함을 갈구하는 현대인의 기질과도 잘 부합된다. 아무 무늬도 없는 흰 바탕의 몸체는 빈 캔버스 같다. 무엇이든 그릴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나는 아직까지 우리 항아리의 결점을 보지 못했다. 둥글다 해서 다 같지가 않다. 모두가 흰 빛깔이다. 그 흰 빛깔이 모두가 다르다. 단순한 원형이, 단순한 순백이,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미묘하고, 그렇게 불가사의한 美를 발산 할 수가 없다. 고요하기만 한 우리 항아리엔 움직임이 있고 속력이 있다. 싸늘한 砂器지만 그 살결에는 다사로운 온도가 있다. 실로 조형미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과장이 아니라 나로선 미에 대한 開眼은 우리 항아리에서 비롯했다고 생각한다. 둥근 항아리, 품에 넘치는 희고 둥근 항아리는 아직도 조형의 전위에서 있지 않을까?

樹話 金煥基가 달항아리를 극찬한 말이다. 초기 작품에서 항아리를 뺀 수화는 상상할 수도 없다. 그림의 主材로 또는 배경으로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얼마나 항아리를 좋아했으면 진열장을 통째로 그려 놓은 것도 있다. 그의 작품은 반추상의 서양화인데도 어딘지 모르게 동양적인 느낌이 강하다. 현대적이면서 세련되었으나 차갑지 않고 우리의 향수를 은근히 자극한다. 달항아리가 추

구하는 조화와 화합의 美는 서양미술에서 추구하는 동일성이나 모방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많은 달항아리들은 제각기 다른 빛깔과 형태를 하고 있다. 또한 수화 그림의 조형미는 늘 우리의 항아리가 주도한다. 그의 그림은 우리 항아리와 닮은 듯하다. 단순하나 한껏 함축적이다. 정제되지 않은 비정형화가 발산하는 매력이다.

구본창은 우연히 본 달항아리 사진 한 장의 인연으로 세계에 흩어져있는 진열장 속의 백자를 카메라 앞으로 불러 모았다. 백자의 투박하면서도 부드러운 질감과 간결하면서도 기품 있는 선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

러나 사진 작업을 하면서 백자의 외형적인 형태보다는 내면에 흐르는 깊고도 단아한 감성에 매료되었다고 한다. 그의 사진 속 달항아리는 고즈넉한 정적에 싸여 있다. 우리 문화의 숨결을 머금고 있는 먼 이국의 달항아리는 어쩐지 애잔한 눈빛을 보내는 듯도 하다.

달항아리는 언제 어디서 보아도 고요하다. 어느 곳에 놓아도 거슬리지 않는다. 오히려 당당하다. 달항아리의 매력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다.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는 추상의 세계에 있다. 달이 그러하듯이, 음전하다. ㉠



김환기
백자와 꽃, 1949

우암산 자락의 문화심터

-국립청주박물관을 다녀와서



청주IC를 벗어나니 길게 늘어난 가로수 길이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이어져 있다. 박물관답사기를 써야 하는 부담감이 어찌 되었든 청주와의 만남은 푸른 느낌, 싱그러움으로 시작되었다. 우암산자락에 포근히 자리하고 있는 국립청주박물관. 건축가 金壽根이 설계하고 1987년 개관한 이곳은 현대건축사에 기념비적인 건축물로 꼽힌다. 흰빛의 강렬한 선이 돋보이는 지붕과 현대적 감각이 살아있는 벽면 디자인, 공간 분할과 연결역할을 하는 성곽모습의 돌담 그리고 건물을 감싸 안은 숲이 있어 외관만으로도 발길을 이끌기에 충분하다.

각기 독립된 건물로 이루어진 박물관은 상설 전시실을 시작으로 위쪽에서 점차 아래로 내려오면서 관람하는 구조이다. 크게 상설전시실, 청명관, 별관, 야외공간으로 나누어진다. 1전시실은 충북지역의 선사문화를 보여주며, 2전시실에는 원삼국·삼국실이 있다. 충북지역은 삼국간의 군사적 충돌이 빈번했던 지역이었으며, 출토유물을 통해 고구려, 백제, 신라 문화의 절충·완충지대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진천 석장리유적은 백제 최대의 철 생산유적으로 대형 제철로를 비롯한 시설들이 발견되었다. 탁 트여 시원한 느낌을 주는 3전시실은 통일신라와 고려실로 특히 불교문화에 대한 유

물을 많이 볼 수 있다. 나란히 있는 계유명전씨 아미타삼존불비상[국보 제106호], 기축명아미타여래제불보살석상[보물 제367호], 미륵보살 반가석상[보물 제368호]에 담겨있는 명문과 놀랍도록 화려하고 섬세한 조각에서 당시 불교가 얼마나 융성했나 알 수 있다. 전시실 한 가운데 웅장한 모습의 망새를 살피다



뒷쪽에 있는 얼굴 하나와 마주친다. 피식 웃음이 나온다. 분명 도깨비 모습인데 아무리 봐도 무섭기는 커녕 오히려 친밀감이 드니 이를 두고 우리 선조의 해학적 예술성이라고 표현해야 하는지. 청주 思惱寺 관련 유물은 청동향로, 금고, 병, 금강령 등 종류도 다양하고 수량도 400여 점에 이른다. 유물에서 사뇌사란 이름과 다양한 명문이 확인되었다. 이 유물들은 몽고침입과 같은 급박한 상황으로 절에서 잠시 묻어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당시 사회상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4전시실은 조선의 도자와 유교문화, 고인쇄에 대한 전시로 이루어졌다. 尤庵 宋時烈 선생이 초서로 쓴 '涼心醒' [마음을 깨우는 물소리] 세 글자에서 유학자의 깨끗한 기개와 흐르는 물의 역동성이 느껴진다. 세계 最古의 금속활자본인 『直指』가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된 사실과 고인쇄의 발전과정을 살필 수 있다. 별관 전시실은 김연호 기증문화재실로 문화재 사랑과 기증의 뜻을 기리고자 마련된 곳이다.

어린이박물관, 수장고, 강당, 다실 등이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淸明館이다. 로비 유리창 밖으로 일렁이는 대나무가 멋스러웠다. 이곳에서 열린다는 음악회의 분위기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국립박물관으로는 처음 마련된 어린이박물관이 청주박물관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귀여운 캐릭터가 어린이들을 반겨주며, 자유롭게 놀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키워가는 시발점이 되는 곳이다. 시각과 청각, 촉각을 이용한 놀이교육도구를 통해 문화의 우수성과 중요성을 배우는 체험학습장이다. 어린이박물관학교의 알찬 교육과 진행은 좋은 본보기가 된다.

郭東錫 관장은 “지역박물관은 무엇보다도 그 지역과 친밀성이 필요하며 각 박물관마다의 특화가 필요합니다.

그 예로 청주박물관은 어린이박물관과 문화쉼터로서의 역할을 들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매년 크고 작은 특별전을 자주 개최하는 청주박물관은 지역주민이 보다 쉽게 찾아오도록 전시와 더불어 많은 볼거리를 마련하고 있다. ‘봄문화축제’는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아름다운 경관 속에서, 체험과 전시를 통해 느끼는 박물관이 되며, 공연과 축제를 통한 만남의 장소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박물관을 찾아 마음껏 놀며 즐기고 있는 아이와 엄마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역주민에게 편안한 박물관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전시실 관람을 끝내고 뒷동산에 마련된 진천 석장리유적과 통일신라 돌덧널무덤 복원전시를 살펴보고 묵묵히 서있는 석장승과도 인사를 나누었다. 산책로를 따라 거닐며 도심 속 생활서 쌓인 먼지를 털어버린다. 우암산자락을 타고 흐르는 맑은 약수 한모금과 녹음 우거진 휴식동산은 박물관이 주는 또 다른 선물이다. 초록의 장막같이 건물을 감싸 안은 담쟁이넝쿨이 단풍보다 더 붉게 물드는 가을에 다시 이곳을 찾아야겠다, 그땐 아이의 손을 잡고 더 편안한 마음으로... ㄷ



옛 것을 상고하지 못했노라

박 지 원

옛사람을 모방해서 글 짓기를 거울에 물건이 비치듯 하면 같다고 할 만한가? 본 물건과는 좌우의 방향이 거꾸로인 것을 어떻게 같다고 하랴. 물에 물건이 나타나듯 하면 같다고 할 만한가? 본 물건과는 위아래가 거꾸로 되는 것을 어떻게 같다고 하랴. 그러면 그림자가 물건을 따라다니듯 하면 같다고 할 만한가? 한낮에는 난쟁이 땅딸보로 되었다가 해가 기운 뒤에는 키다리 꺽청이로 되는 것을 어떻게 같다고 하랴. 그러면 그림으로 물건을 그리듯 하면 같다고 할 만한가? 다니지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하는 것도 없고 소리가 없으니 어떻게 같다고 하랴.

그러니까 결국 같을 수는 없다는 말인가? 대체 왜 하필 같은 것만 찾으랴. 같은 것을 찾았더라도 바로 그것은 아니다. 천하의 꼭 같은 것을 반드시 닮았다고 이르고 서로 분간하기 어려운 것은 또한 참에 다다랐다고 하는데, 참이라거나 닮았다거나 하는 말 가운데는 벌써 가짜나 다른 것이란 뜻이 들어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천하에는 이해하기 몹시 어려우나 배워 낼 수 있는 것도 있고 절대로 다르나 서로 같은 것도 있다. 즉 통역과 번역으로 외국 말을 알아듣게 되고 大篆, 小篆, 隸書, 楷

書 어느 것으로 써서도 마찬가지로의 글을 이룬다. 왜 그런가? 다른 것은 외형이요, 같은 것은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내용이 같다는 것은 뜻과 의견이요, 외형이 같다는 것은 털과 겉껍질이다.

이씨 집안의 아들 洛瑞(李書九)는 올해 나이 열여섯으로 나한테 다니며 공부한 지 해포가 넘는다. 비상한 천분이 일찍부터 드러나고 슬기로운 생각이 구슬 같았다. 어느 날 자기가 쓴 《綠天館集》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물었다.

“제가 글을 짓기 시작한 지 겨우 두어 해밖에 안 되건만 남의 노여움을 산 것이 많습시다. 한 마디만 조금 새롭고 한 글자만 다소 신기해 보이는 것이 있으면 옛날에도 이렇게 쓴 예가 있느냐고 반드시 따지고, 없다고 하면 곧 풀풀하니 성을 내면서 어찌 감히 그렇게 쓰느냐고 합니다. 옛날에 이미 그렇게 쓴 것이 있다면 제가 또 그렇게 되풀이할 맛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선생님이 어떻게 정해 주십시오.”

내가 손을 모아 이마에 얹고 세 번 예를 한 다음 다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말하였다.

“그 말이 참 옳은 말일세. 전하지 못하던 옛



날 학문이 자네에 의해서 계승될 것일세. 창힐이 처음 글자를 만들 때 그 어떤 옛날을 본뵈었나?

顏淵은 공부하기만 좋아했고 책을 쓴 것은 없네그러. 만약에 옛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창힐이 글자 만들던 때를 생각해 가면서 안연이 적지 않은 사연을 적는다면 글이 비로소 바

르게 될 것일세. 자네가 지금 나이 적으니 남의 노여움을 사게 되거든 아직 널리 배우지 못하여 옛것을 상고하지 못했노라 하게. 그래도 자꾸 묻고 덤비면서 골을 내거든 조심해서 대답하기를,《書經》에 나오는 글들은 삼대 적의 시속 글이요. 李斯와 王羲之도 다 각각 자기 시대의 속된 글씨였다고 하게.”

‘綠天館集序’ 《연암집》

綠天館集序

倣古爲文 如鏡之照形 可謂似也歟 曰左右相反 惡得而似也 如水之寫形 可謂似也歟 曰本末倒見 惡得而似也 如影之隨形 可謂似也歟 曰午陽則侏儒僂僂 斜日則龍伯防風 惡得而似也 如畫之描形 可謂似也歟 曰行者不動 語者無聲 惡得而似也 曰然則終不可得而似歟 曰夫何求乎似也 求似者非眞也 天下之所謂相同者 必稱酷肖 難辨者亦曰逼真 夫語眞語肖之際 假與異在其中矣 故天下有難解而可學 絕異而相似者 靛象寄譯 可以通意 篆籀隸楷 皆能成文 何則 所異者形 所同者心故耳 繇是觀之 心似者志意也 形似者皮毛也 李氏子洛瑞年十六 從不佞學有年矣 心靈夙開 慧識如珠 嘗携其綠天之稿 質于不佞曰 嗟乎 余之爲文纔數歲矣 其犯人之怒多矣 片言稍新 隻字涉奇 則輒問古有是否 否則怫然于色曰 安敢乃爾 噫 於古有之 我何更爲 願夫子有以定之也 不佞攢手加額 三拜以跪曰 此言甚正 可興絕學 蒼頡造字 倣於何古 顏淵好學 獨無著書 苟使好古者 思蒼頡造字之時 著顏子未發之旨 文始正矣 吾子年少耳 逢人之怒 敬而謝之曰 不能博學 未攷於古矣 問猶不止 怒猶未解 嘖嘖然答曰 殷誥周雅 三代之時文 丞相右軍 秦晉之俗筆

삶과 죽음의 길이 예 앞으매

고려 묘지명을 보고

진 수 옥 |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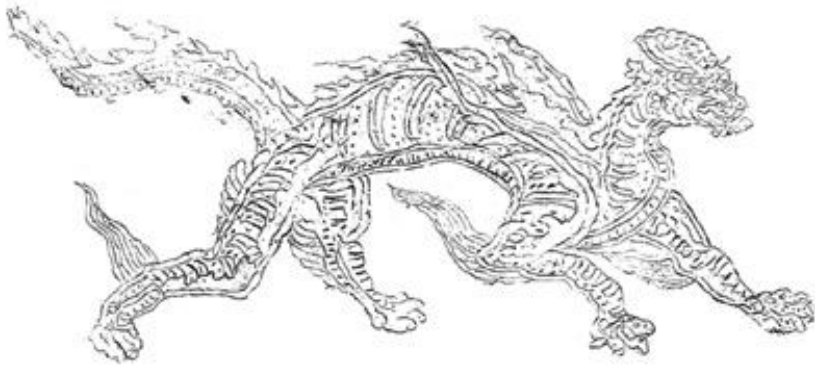
시간을 뛰어 넘는 일은 늘 즐겁다. 분초를 따지며 사는 요즘 우리들 삶에서 가끔 백년 천년이란 시간과 마주하면 마치 하늘에 올라 복닥거리는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상쾌하다. 제법 마음이 허허롭게 느껴지기도 한다. 바늘 하나 꽃을 만큼의 여유밖에 없던 마음이 그래도 조금은 넓어진다. 마음에 빈틈이 생기는 순간이다.

유난히도 더웠던 지난 여름 박물관에서 열린 고려 墓誌銘을 보는 마음이 그랬다. 죽은 이를 애도하며 써넣은 묘지명은 천 년 전의 그들처럼 우리 역시 같은 기쁨과 슬픔의 길을 걷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 마음인 것을. 떠난 이를 애도하는 마음이 어찌 공책만한 돌 한 장에 다 담길 수야 있으랴만, 또렷이 아로새긴 글자들 위로 그들의 슬픔과 아쉬움, 그리고 인생관이 다 비치고 있었다.

아! 죽음은 누구나 겪는 일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살다가 죽는 것은 낮과 밤이 바뀌고 추위와 더위가 서로 교대하는 것과 같으니 어찌 죽음만 싫어하고 태어나는 것만 좋아할 일인가? 다만 공명을 미처 세우지 못하였는데도 서둘러 멀리 떠나 처자와 벗들에게 오래도록 슬프고 아픈 고통을 준 것이 애석할 따름이다.

(박황 묘지명, 1152)





〈염경애 묘지명의 뒷면에 새겨진 백호그림〉

낮밤이 바뀌는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럽게 당연한 일, 그것이 죽음이란다. 다만 서둘러 떠나는 것이 애석할 뿐이니 죽음은 싫어할 일도 세상이 끝날 듯 슬퍼할 일도 아니라고 한다. 죽음은 분명 큰 슬픔이지만 위로하지 못할 아픔은 아니다. 그래서 내세를 기약하지 않던가.

묘지명은 주로 가까운 사람

들, 남편이나 자식, 조카, 벗, 혹은 아들의 친구 등이 쓰고 새겼다. 따라서 생애 중 특징적인 사건들이 진솔하게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다. 마치 빛 바랜 사진을 보는 듯 꾸밈이 없다. 문장이나 서체 또한 당대 뛰어난 솜씨들이 많아 읽는 맛을 더한다. 그 중 아내 廉瓊愛를 그리며 남편 崔婁佰이 쓴 묘지명이 눈길을 끈다. 담담히 써내려간 글에는 주체하지 못하는 슬픔이 어려있다. 마흔 일곱의 나이로 여섯 아이를 뒤로 한 채 먼저 간 아내이다.

(남편인) 누백은 다음과 같이 묘지를 짓는다. 아내의 이름은 경애라... 스물 다섯에 나에게 시집와 여섯 아이를 낳았다. 첫아들 端仁, 둘째 端義, 셋째 端禮 모두 학문에 뜻을 두었으며 넷째 端智는 승려가 되었다. 큰 딸 貴姜은 최극보에게 시집갔으며, 둘째딸 順姜은 아직 어리다. 아내는 성품이 영롱하게 아름답고 엄숙하다.....

평소에 일찍이 내게 말하기를,

“(...) 뒷날 불행히도 내가 천한 목숨을 거두고 당신은 많은 녹을 받아 모든 일이 잘 되더라도, 나를 살림 재주가 없었다 하지 마시고 가난을 이겨내던 일은 잊지 말아 주세요”라고 하였는데, 말을 마치고는 크게 탄식을 했다.

을축년(1145) 봄에 내가 司直에서 右正言 知制誥로 자리를 옮기니, 아내가 기뻐하며 말하였다. “우리의 가난도 이제 가시려나봐요.”

내가 (무정하게) 대답했다. “간관은 녹봉이나 받는 자리가 아니오.”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어느날 당신이 궁전에서 천자와 옳고 그른 것을 따지게 된다면, 비록 가시나무 비녀를 꿸고 무명치마를 입고 삼래기를 이고 살게 되더라도 달게 여길 거예요.” 평범한 부녀자의 말 같지가 않았다.

그 해 9월에 아내는 병이 들었는데 병인년(1146) 정월에 병이 위독하게 되어 세상을 떠나니, 한이 어떠하였겠는가.


(염경애 묘지명, 1148)

가난을 견디는 일은 힘들다. 다만 참고 잘 살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같이 하던 동반자를 잃었다면, 가난과 고통에서 벗어난 기쁨이 홀로 남은 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오히려 허전함만이 더할 뿐이다. 자신이 이 세상에 없고 당신이 잘 되더라도 행여 살림 솜씨가 없었다고 비난하지 말며 오직 함께 가난을 이겨내던 일만을 기억해달라던 아내의 말은 그래서 더욱 남편의 가슴을 울린다. 병을 얻은 지 반년도 채 안되어 떠난 아내의 빈자리를 어찌 메울 수 있으랴. 새록새록 옛 일만 떠오르고 회한만 사무친다. 남편은 그저 통곡할 뿐이다.

銘하기를 믿음으로 맹세하건대 당신을 감히 잊지 못하리다.
함께 묻히지 못함이 매우 애통하도다.
아들 딸들이 있어 나는 기러기떼 같으니 부귀가 대대로 창성하리로다.
(염경애 묘지명.1148)

떠난 자를 애통해하는 만큼 외로움도 컸었던가. 최누백은 뒤에 재혼하여 다섯 자녀를 더 두었다고 전한다. 아참 세상이 그랬었지. 떠난 사람은 산 사람의 가슴에만 남아 있을 뿐, 산 사람은 다시 누군가와 피와 살을 맞대고 살아야 하는 거지. 눈물은 아래로 흘러도 밥순가락은 위로 다시 올려야 살아남게 되는 거지. 것처럼 떠난 자를 애통해하던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새 위로가 되고 그 빈자리는 다른 사람에 의해 메워진다. 절대 지워지지 않을 것 같던 슬픔도 아쉬움도 시간을 넘어설 수는 없다. 오로지 있다면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만 영원할 뿐이다. 변하는 시간 속에서 살아있음을 통째로 느끼며 사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사실' 만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진실이 아닐까.

고려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그들과 내가 같은 마음임을 확인하는 순간 어느덧 혼자라는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나는 더 큰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다. 먼 예로부터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과 같은 즐거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 결국은 자연이나 온 우주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에 까지 이르면 이제 박물관은 깨달음의 장소가 된다. 나도 자연의 일부분이고 나의 생명줄 어느 한 가닥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직 병원을 드나들어야하는 요즘의 나에게 죽음이란 솔직히 두렵다. 그러나 묘지명을 보며 마음을 다독인다. 삶과 죽음이란 같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니 사는 동안은 그냥 삶 쪽을 바라보고 즐겁게 살라고. 그리고 죽음의 쓸쓸함을 견디는 것은 떠난 자의 몫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의 몫이라고. 

男根 斷想

유 병 하 | 국립경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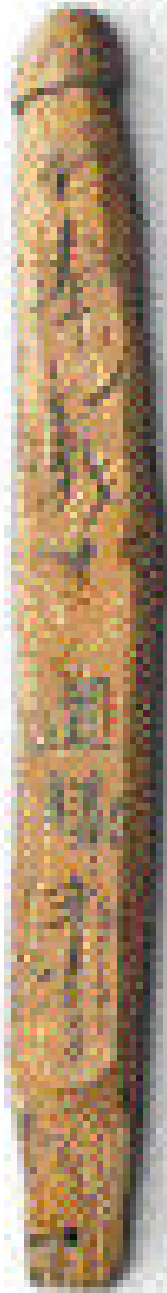
국립경주박물관의 전시실에서는 가끔 이색적인 광경을 만나게 된다. 안압지관 진열장 앞에 선 관람객의 은밀한 태도가 눈길을 끈다. 혹여 누가 볼까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듯, 그러나 딱 잘라 발길을 떼지는 못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은근한 미소를 지으면서 매우 흥미롭게 유물을 지켜보는 모습이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애써 그것을 관람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전시된 유물이 바로 男根이기 때문이다.

눈을 맞추고 유물은 자세히 본 사람들은 남근이 박물관 진열장에 있다는 사실보다 너무나 생생한 描寫에 다시 한 번 놀라게 된다. 雁鴨池에서 출토된 木製 남근은 전체 길이가 17cm로 발기된 성인 남성의 그것에 매우 가깝다. 모양도 그냥 두루뭉실한 막대기가 아니라 귀두까지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다. 신라 王京 地區에서 나온 石製 남근은 파손된 채로 출토되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유물의 길이는 7.8cm 뿐이지만 실제로는 15~20c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성기의 주름까지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어 안압지 출토품과 비교해 볼 때 훨씬 실제에 가깝다. 이 두 유물 모두 귀두나 성기의 길이에서 약간의 과장은 있어도 사실성이 매우 뛰어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유물을 보고난 대부분의 관람객은 미소를 머금은 채 전시실을 떠나지만 몇몇은 용기를 내어 박물관 직원들에게 도대체 무슨 용도로 썼느냐고 질문해 온다. 안압지의 연못 바닥과 왕경의 배수로에서 별다른 고고학적 흔적없이 출토되었으니 그들이라고 준비된 답변이 있을 리 없다. 그렇다고 묵묵부답 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여성용



〈석제 남근, 신라 왕경지구 출토〉



〈남근형 목간, 백제〉


성인용품이나 제사용품이 아니겠느냐고 한다. 그러나 여성용 성인용품이라는 말에는 직원이나 관람객이나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기색이 역력하다. 왜냐하면 신라의 궁중이나 왕경에서 性의 접촉이 제한된 여성들이 사용했다기에는 지나치게 사실적이며,材質 면에서도 자위용 물품으로 보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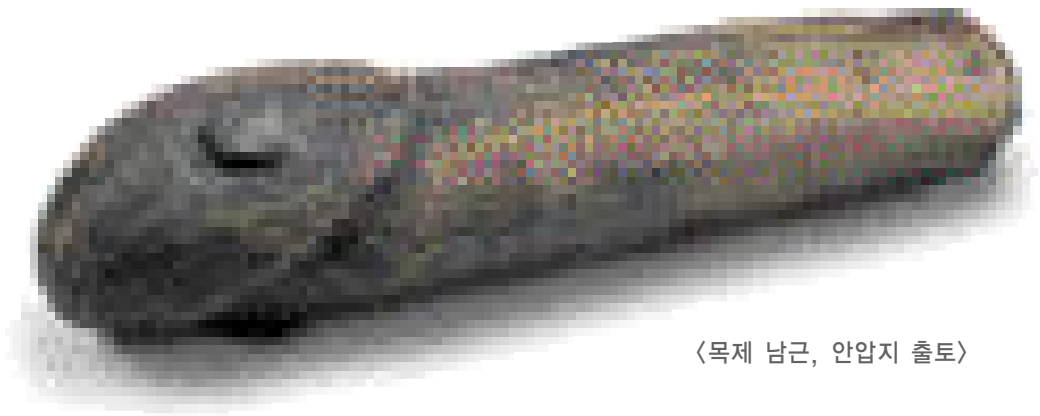
오히려 관련된 몇몇 자료를 살펴보면, 성인용품이라기 보다는 제사용 貢獻物로 보는 것이 나올 것 같다. 5~6세기에 제작된 신라 土偶에는 남근이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다. 남성의 돌출된 성기를 이미지화하여 고대사회의 농업증대나 인구생산을 염원하였다. 그리고 토기항아리에 부착하여 제사에 사용함으로써 남근이 고대의 제사와 관련되었다는 것을 일찍부터 보여주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부여 羅城의 東門址에서 출토된 백제의 남근형 木簡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목간에는 ‘길 가에 세워 나무에 걸었다’는 글씨가 새겨져 있고, 도로변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도성의 길가에서 지냈던 제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 역시 남근과 제사와의 관련성을 말해준다. 물론 위에서 거론된 두 종류의 자료가 시기나 지역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주지역에서 출토된 남근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고대사회에서 신앙과 관련된 전통은 쉽사리 바뀌지 않으며, 지역적으로도 신라와 백제의 그것은 유사할 가능성이 있어 용도를 추정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신라에서 남근을 만든 것과 비슷한 시기의 日本과 唐, 渤海의 경우를 살펴보면 제사용품으로서의 용도가 좀 더 뚜렷하게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고대 일본에서는 목제 남근이 중앙과 지방의 都城 제사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흔적이 있다. 예를 들어 7~8세기 다카조(多賀城)의 주변 도로상에서는 여행자나 도성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신라의 것과 비슷한 목제 남근이 제사에 사용되었다. 중국의 경우에도 商周·漢 이래로 土·石·銅製의 남근이 만들어졌고, 唐에서도 石製나 織紬를 입힌 陶製 남근이 제작·사용되었다. 그밖에 발해의 수도였던 東京城 내에서도 신라의 왕경지구와 같은 모양의 土製 남근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양상으로 보건대 7~10세기의 동북아시아지역에서는 사실적인 남근을 제작하여 각종 제사에 사용하던 전통이 보편화되었고, 마찬가지로 신라에서도 제사용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고대사회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신앙의 기본성격과 제사터[祭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고대 海洋信仰의 한 형태로 노천제사를 지냈던 부안 竹幕洞 제사유적이거나 일본의 오키노시마(沖ノ島)·미타케(御嶽) 유적에서는 바다에서의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제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또한 제사용품으로 지금까지 산악·도성·해양제사 등에 지속적으로 사용되던 유물도 적지 않다. 토·동·철제 소형말이 그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옛 제사터로 추정되는 강화 喬桐面과 명주 江東面 소재의 해신당에서 남근이 제사용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렇다면 신라의 남근도 역시 고대의 제사용품이 현재까지 그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신라의 남근은 여성 자위용이라기보다 제사용품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다만 유물이 고립되어 출토되었고, 제사행위와 관련된 유구라는 확신이 서지 않아 아직 단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신라 궁중이나 왕경의 제사에 사용되었던 것이 나중에 연못 속에 폐기되었거나, 일부가 배수로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삼국사기>에 기록된 여러 종류의 제사와 용품에 대한 흔적이 신라고고학 연구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즈음까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다.

부족하지만 이렇게라도 신라 남근의 비밀을 벗기고 나니 더 이상 전시된 유물을 보면서 우리가 민망해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보다는 오히려 고대 신라의 신앙이나, 더 나아가 7~10세기 동북아시아에서의 신앙 모습을 고고학적으로 입증해줄 중요한 자료로 재조명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목제 남근, 안압지 출토〉

그 아름다운微笑 속에 사무치는恨이

麥積山石窟에서

유 중 용 | 회원

甘肅의 “小江南”이라는 天水로 왔다. 그리고 다음날 조반 후 맥적산 석굴을 찾았다. “바라보면 둥근 것이, 민간에서 보리를 쌓아놓은 모양과 같다”[望之團團如民間積麥之狀]고 해서 생긴 이름이다. 東晉 16국 시대 渭河와 嘉陵江 상류 맥적단애에 開鑿해 1600 여 년 동안 造營된 석굴이다. 150 여 미터의 凌空棧道를 오르내리며 만든 窟龕이 204 곳, 불상이 7000 여 位로 불상이 숲을 이루었다.

주로 砂巖 석질이기 때문에 泥塑像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먼저 체형을 만들고 그 위에 진흙을 발라 형상을 완성하고 채색을 한 것이 대부분이다. 석굴예술의 3대 분야 중에 造像이 으뜸이라는 말이 이곳에 와보면 확실해 진다. 물론 벽화와 건축이 불상을 위한 보조적인 까닭도 있지만, 만든 이들의 심혈이 조상에 주로 傾倒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다른 석굴에 비해 보존상태가 좋아서, 그들은 東方泥塑館이라 부를 정도다. 불교문화가 전래되는 중요한 길목이었기에 굽타문화에서 출발한 아유타 석굴의 초기형식과, 인도·그리스·로마·페르시아 등 문화의 자취가 담겨 있다. 또 이 시기는 간다라예술이 인도·아프칸 예술로 변화되는 때였기에 모든 예술들이 百家齊放的인 상태였다. 漢朝의 서역통합정책으로 중원문화가 바탕에 깔리고, 실크로드를 통해 수입된 多源的 문화 형태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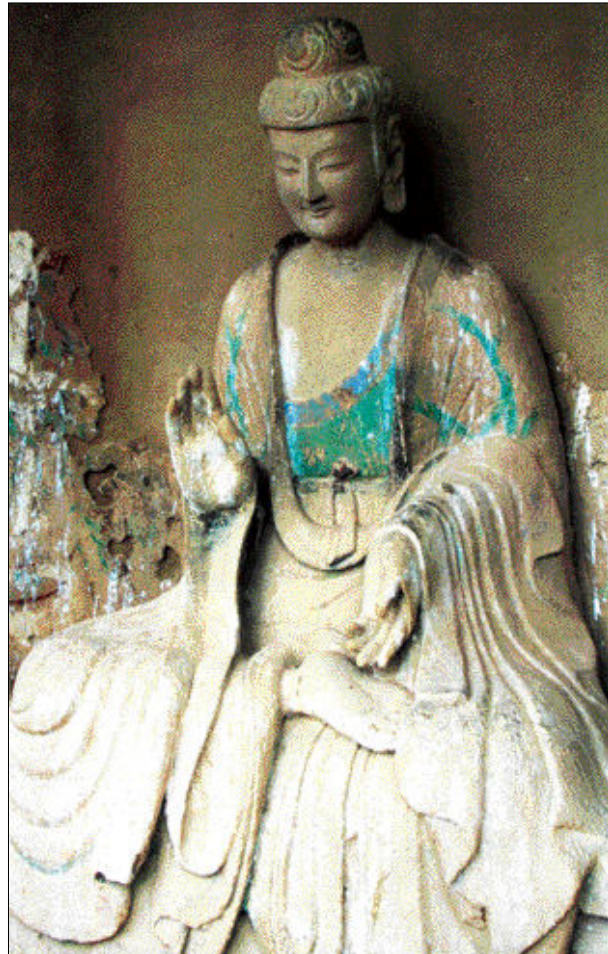
규모나 조영 기간으로 보면 중국 제일이라 할 수 없으나, 중원과 돈황을 이어주고 河西回廊의 서역 제국과 고대인도의 통상요지라는 면에서, 맥적산은 석굴예술의 明珠라는 이름에 손색이 없다.

공중에 높이 달린 사다리에 오르니 / 攝盡懸崖萬仞梯
몸은 흰 구름 속에 등등 떠 있네. / 等閒身與白雲齊

五代の 시인 王仁裕의 시가 실감이 날 정도로 아슬아슬하고, 자연 경관도 뛰어난 곳이다.

麥積山の石窟들은 한 마디로 웃음판이다. 秦지방의 처녀처럼 순박한 웃음이 있는가 하면 [6호 西龕室의 立佛과, 20호 굴의 主佛], 이국적이면서 고귀한 미소를 머금기도 하고 [44호굴 正壁 左側의 脇侍菩薩과 80호굴 좌벽 협시보살], 아름다움이 넘쳐흐르는 영원한 여성적 웃음을 입가에 띠우기도 한다 [121호굴 정벽 좌측의 兩 협시보살과 85호굴의 정벽 우측 협시보살]. 여기에 아직稚氣를 벗지 못한 청순하게 웃는 阿難像과 [133호와 142호굴], 시골 노인 같이 웃는 문수보살상에다 [102호굴의 우벽], 閻闍에서 보는 소탈한 웃음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은 맥적산의 보석 44호굴의 主佛 泥塑像이다. 이곳 석굴의 최고걸작으로 精緻한 조형의 아름다움이 있다. 溫柔하게 가부좌를 개고 머리에 旋紋의 肉髻가 있어 한층 더 고귀하게 보인다. 얼굴이 둥글고 眉目이 淸秀하며, 얇은 입술



에 작은 입, 그 위에 은은한 웃음을 바라보면 밀려오는 긴장감으로 몸이 굳어지고 가슴이 울렁거린다. 오뚝하게 쪽 뺀 코, 넓은 이마와 그린 듯한 눈썹에는 빛나는 예지가 가득하고, 살오른 두 볼에는 신비로운 미소가 배어 나와 보는 이를 편안하게 한다.

선율처럼 물결쳐 내린 천의자락은 부드럽게 드리웠고, 하늘에서 하강한 듯한 法身은 그 身光이 굴을 밝혀 一切衆生의 心眼을 열어 주는 듯하다. 옷 사이로 보이는 발은 가부좌를 개었고, 施無畏印의 수인은 유연하여 慰撫와 평온을 가르친다. 중국인들은 이 불상을 眞善美의 화신으로 귀하게 여겨 다빈치의 ‘모나리자’에 비유한다. 그러나 모나리자처럼 성스럽기 보다는 오히려 정겹고, 우리의 83호 반가사유상처럼 순진하고도 어머니의 푸근함까지 서린 너무나 인간적인 부처로 보인다. 모나리자의 눈길은 마음을 꿰뚫는 예리함이 있다면, 이 主佛이나 사유상의 내려다보는 눈길은 중생들을 어루만지는 자애로움으로 가득하다.

梁 武帝의 淨業賦에서는 “날씬한 허리에 가는 손가락, 연약한 골격에 통통하게 오른 살결, 순결



한 몸에 향기로운 체취[細腰纖手 弱骨豐飢 附身芳潔]라 하여 피부색까지 아름답게 표현하려 애썼다. 거기에 “형상에 정신이 배어서 전달되어야 한다”는 慧遠風의 “以形寫神”이나, 顧愷之의 “정신을 사물에 옮겨 담아 기운이 생동하도록 그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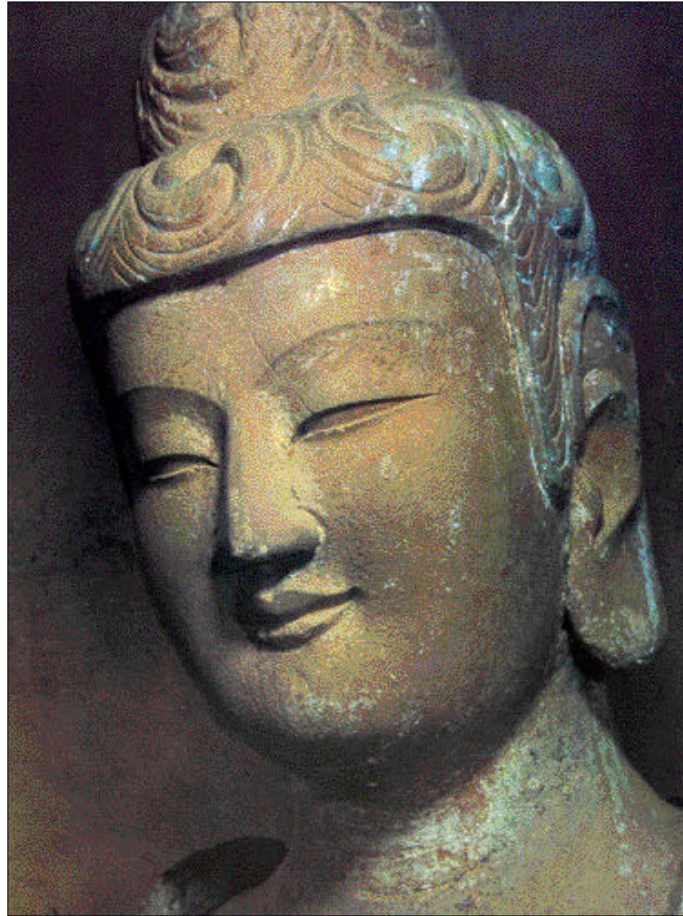
[傳神寫照 氣韻生動]는 예술지표가 북위에 오면 後秦風格이 더해진 秀骨清像을 곁들인다. 이런 풍조는 西魏에 이르러 모성적 자애로움에 때로는 沙彌 같이 천진스러움이 서린 東方의 微笑가 더해진다. 44호굴의 본존불은 이런 때의 작품으로 그 아름다운 미소 뒤엔 애끓는 사연이 있다.

남북조 시대의 통치자들이 권력유지를 위해 부처를 믿고 많은 佛事를 일으켰으니, 이 석굴도 그 때 조영된 것이다. 권력의 이동이 잦고 나라의 浮沈이 빈번해서 底層출신의 제왕들이 그 立地를 유지하려고 門閥世族들과 온갖 형태의 인연을 맺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는 사이 신흥 귀족들이 기성 지배층을 몰락시키고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불교에 힘을 쏟으니, 이제까지의 莊嚴 典雅하던 자비로운 불상들이 당시의 왕이나 권력자의 얼굴로 표현되기도 했다. 이는 통치자가 곧 부처라는 인식을 심어 민심을 안정시키려는 의도에서였다.

북위가 분열되어 西魏와 東魏로 나누어졌다. 宇文泰가 서위의 전권을 장악하고 황제는 허수아비가 되었으니, 유약한 서위황실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서위 文皇后 乙弗氏의 죽음이니 이는 맥적산이 개작되어 발전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北史 13卷 列傳의 西魏文帝文皇后乙弗氏傳에 의하면 13세에 제일황후로 책봉된 을불씨는 용모가 단정하고 품위가 출중하여 文帝가 특히 애중히 여겼다. 그때 동위와의 전쟁으로 국력이 약해졌는데 북쪽에서 柔然이 또 침입하니, 위기를 구할 방법으로 유연공주로 悼后를 삼고 문황후를 폐하여 별궁에 살게 했다. 그러나 도후가 계속 투기하자 문제는 모후를 맥적산으로 出家시켰다. ‘한 나라에 두 황후가 있을 수 없다’[一國不容兩后]며 또다시 남침하자 문제는 어쩔 수 없이 황후를 자진토록 했다. 죽음에 임한 황후

는 아들을 보고 “원컨대 황제께서 千歲를 누리시어 천하가 평안하면 첩이 죽는 것은 한스럽지 않다”고 하며 한 없이 흐느꼈다. 원통히 죽은 을불씨를 麥積崖에 장사지내고 감실을 만들어 寂陵이라 했다. 그리고 후에 44호 굴이 조영되었다.

바로 옆 43호굴이 寂陵이니, 이 두 굴은 인위적으로 을불씨를 기념하기 위해 조성한 것 같다. 44호 主佛이 귀족적인 毅然한 풍채와 姿色, 전아한 품격의 相好, 단정한 몸가짐, 거기에 이 지방[秦] 여인의 질박하고 순후함을 구비한 것은 을불황후의 국모형상을 구현한 것이다. 불행을 넘어 이상적 실체로 현현하여 1500 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아서 눈부신 아름다움으로 이 맥적산을 찾은 나그네를 감동



시키고 있다. 자신의 불행했던 삶을 法身에 의탁해서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면 그 또한 큰 보람일 것이다.

황후의 억울한 죽음과 못다한 恨이, 그 슬픔을 구제하지 못한 남은 이들의 찢어지는 아픔이, 그 후 이곳을 스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짝한 마음들이, 파노라마처럼 명멸했다. 외로운 영혼은 천수백 년 동안 달 밝은 밤에 이 잔도를 서성이며, 망국의 한을 달래고, 무고히 죽은 넋들을 어루만졌을 것이다.

사람의 일이 다 피었다가 지는 꽃이거늘, 화창한 맑은 날에 그 고귀한 향기를 마음껏 풍길 수도 있고, 이슬비 맞으며 보는 사람 마음 아프게 하다가 저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꽃은 영원한 세월을 그렇게 우리 가슴에서 피고 진다. 맥적산 棧道를 다 내려와 다시 44호굴을 향해 정중히 합장하고 돌아서서 산 위를 바라보니 흰 구름 한 점이 무심히 날고 있었다. 조금 전에 본 그 많은 불상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쳐 무엇이든 다 용서할 것 같다. 心累가 사라지고 개운해졌다. 萬法在心이거늘 굳이 다른 데서 구할 것 무엇인가. M

“문화재는 모두의 것입니다”

-남궁 련 기증유물



지난 8월 전 대한조선공사 회장 故 南宮 鍊(1916~2006. 2.) 선생이 수집한 귀중한 문화재 256점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되었다. 유족들이 생전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이다.

기증한 문화재는 고려청자·분청사기·조선백자 등 도자기류가 대부분이며 서화류·목제함과 흥배가 있다. 국보 145호 鬼面靑銅爐가 단연 눈길을 끈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솔모양의 몸체에 도깨비 얼굴을 형상화하고 있다. 금방이라도 불을 뿜어 낼 듯 입을 벌리고 있으나, 자그마한 모습이 익살스럽다. 통풍구가 있어 풍로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 가지 흙을 섞어 대리석과 비슷한 무늬를 얹게 빚어낸 靑磁練理文碗도 이채롭다. 흑·백·청의 다른 색깔의 재료가 조화되어 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이러한 연리문 기법의 청자는 현재 남아있는 예가 극히 드물어 한 번 더 눈여겨보게 한다. 그밖에 대나무 사이로 청초한 비새이 고인 더 없이 아름다운 靑磁竹節形碗과 역상감 기법으로 시문한 靑磁象嵌唐草文鉢 등 여러 문양의 청자가 있다.

또 조선전기 유행하였던 유려한 음각 선으로 꽃잎을 표현한 白磁花形접시와 단정하고 우아한 白磁瓶, 분원에서 제작된 대형 백자제기 등 다양하다.



남궁 련 선생은 우리나라 해운·조선업계의 개척자이다. 전쟁 직후인 1950년대 초부터 우리 문화재를 지키려는 목적에서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사업을 하면서 틈틈이 주로 도자기를 위주로 유물을 모았다. 외국 출장 중에는 현지 박물관을 찾았고, 관련 서적을 탐독할 정도로 문화재에 흠뻑 빠졌다고 한다. 우리나라 문화재를 세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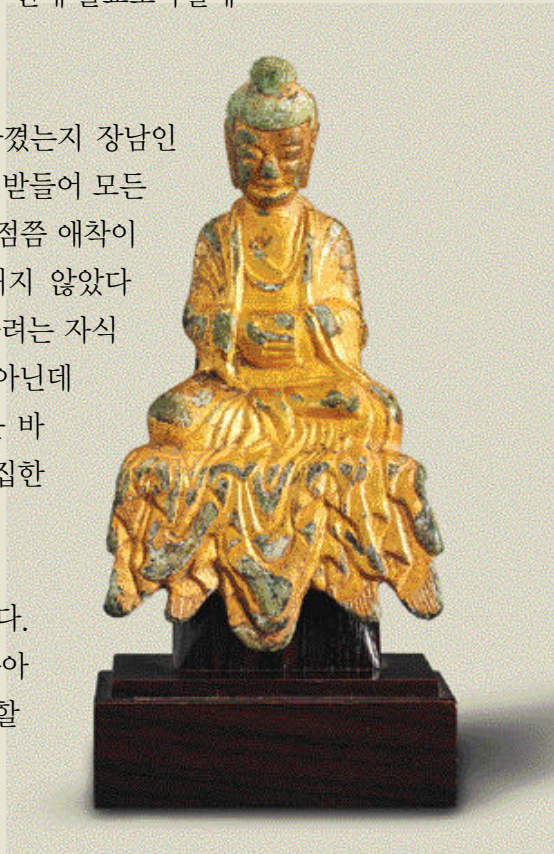
알리고자 영국 브리티시 박물관과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등에 기증하기도 했다. 부인도 민예품을 수집, 그것을 가구로 쓰기도 하였는데, 작고하자 그 역시 국립민속박물관에 모두 기증했다. 취미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 즐거움을 공유

하고 살다가 아낌없이 주고 떠난 그들, 상상만으로도 그들 부부가 한없이 부러워진다.

고인의 문화재가 중앙박물관에 기증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1997년 '청자대접'과 1999년 '金銅如來坐像'을 내놓았다. 특히 금동여래좌상은 삼국시대 초기에 유행했던 것으로 강직하고 예리한 조각 수법에서 고구려적 요소가 보여 가치 있게 평가된다. 현재 불교조각실에서 전시되고 있다.

고인을 뵈 수 없어 애석했으나 평소 얼마나 유물을 아꼈는지 장남인 南宮 浩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아버지 뜻을 받들어 모든 형제가 흔쾌히 기증에 동의하였다고 한다. 어쩌면 한 두 점쯤 애착이 가 곁에 두고 싶을텐데 가족 누구도 그것에 욕심을 내지 않았다니……. “문화재는 공유해야한다.”는 선친의 뜻을 존중하려는 자식들의 각별한 애정과 우애가 느껴진다. 자신이 한 일도 아닌데 언론의 조명을 받아 부담스러워하며 크게 포장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모습에서 소박한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수집한 유물을 문화재로만 보았기 때문은 아닐는지.

9월 19일부터 기증관에서 고인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유물전체를 다 볼 수 없어 아쉽지만, 독특한 유물 속에 녹아 있는 그분의 애정만으로도 우리의 발길을 멈추기에 충분할 것이다.  **전**



“찬란한 천년의 빛, 나전칠기”

“찬란한 천년의 빛, 나전칠기” 특별전이 9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영롱한 빛과 색채로 생활 속 가까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그간 소개가 미흡했던 한국 螺鈿漆器를 새롭게 조명하였다. 전시는 <한국나전칠기의 기원>, <고려의 나전칠기>, <조선의 나전칠기>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었고, <전통의 현대적 계승>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현대의 나전칠기 장인들의 작품으로 이루어졌다. <동아시아의 칠공예>에서는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칠기류도 함께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및 국내외 명품, 미공개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일본에 있는 고려와 조선 전기 작품을 포함한 우리나라 나전 칠기명품이 함께 전시되었다. 한국나전칠기의 예술성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최초의 전시로 큰 의미가 있다.




‘나전’이란 자개로 만든 무늬를 물진 표면에 붙이거나 박아 넣어 장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법은 당나라에서 통일신라, 일본 등지로 전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칠바탕 위에 자개를 붙이고 다시 칠을 올린 뒤 표면을 갈아내어 무늬를 드러냈기에 나전에는 으레 칠이란 단어를 붙여 나전칠기라고 말한다.

일본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나전 대모 국화
 녕쿨무늬 염주합'은 조개와 玳瑁(거북등껍질)
 을 얇게 갈아 투명하게 만든 후 채색하여
 장식하였다. 주황색과 붉은색 대모를 사용
 한 국화꽃이 원형을 이루며 염주합 전체를
 뒤덮고 있다. 마치 가을 정원에 붉게 피어난
 국화꽃들이 빙글빙글 춤추며 넓은 꽃잎치마를
 펼쳐놓은 듯하다. 여기서 어찌 더 화려할 수 있을



까. 고려 공예미술의 백미를 보여주는 걸작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는 나전
 칠기에서도 뚜렷이 보여진다. 고려 나전칠기의 특성인 촘촘하며 반복적 무늬가 조선시대로 접어들
 면서 점차 무늬가 커지고 종류도 다양해지며, 귀족적인 취향에서 대중적인 성향으로 변화해 갔다.
 '나전 칠 포도무늬 옷상자'에는 풍성한 포도송이가 가득 담겨있다. 대담하게 묘사된 줄기와 세심한
 녕쿨이 마치 한 폭의 회화를 펼쳐놓은 듯하다. 포도녕쿨 사이에 날아다니는 벌과 나비는 사실적이
 면서도 장인의 맛깔스러운 예술적 재치로 느껴진다



어린 시절 안방에 들어서면 어머니의 손길이 묻어나는 장과
 함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 무엇이 그리 좋아 담고
 보고 하실까 했는데, 전시실을 돌아 나오며 이제는 이유를 알 것 같
 다. 천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바라지 않는 은은하면서도 영롱한 한국
 나전칠기의 빛과 색, 그 안에는 우리만의 찬란한 아름다움과 멋이
 담겨있다. 


신임 국립중앙박물관장



지난 8월 국립중앙박물관은 김홍남 전 국립민속박물관장을 새 관장으로 맞았다.

김관장은 첫 공식행사로 <나전칠기> 기획전을 주재했다. 우리 전통문화 보고의 수장답게 하얀 생활한복 차림이었다. 약간 상기된 듯 바쁜 행보 속에서도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았다. 국내외 문화인사가 대거 참가한 전시회 개막식 분위기는 부드러웠다.

그는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부산과 서울에서 성장기를 보냈다. 서울대 미학과와 예일대 미술사학과에서 공부했다. 논문의 주제는 '17세기 중국회화사', 한국인으로는 처음 미술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스미소니언 박물관 등지에서 연구원으로 지냈다. 아시아소사이어티 록펠러동양미술관에서 '조선시대 도자기전', '18세기 조선 회화전' 등을 기획, 연구뿐 아니라 현장 활동에도 강한 면모를 과시했다. 귀국 후 이화여대 교수, 이대박물관장을 역임했다. 박물관장 재임시절, 기획력이 돋보이는 전시가 많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3년부터 국립민속박물관장으로 재임했다.


최초의 외부출신이자 첫 여성 국립중앙박물관장이라는 이유로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힘있게 밀어 붙이는 추진력 덕분에 강단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년간의 국립민속관장직 수행은 그의 업무에 대한 검증 기간이 아니었을까. 너른 장이 펼쳐졌다. 언론의 입방아를 장점으로 살려 품은 뜻을 마음껏 펼치길 기원한다. 

秋史 김정희 - 學藝일치의 경지



秋史 金正喜 逝去 15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전시회 ‘秋史 김정희 - 學藝일치의 경지’ (10. 3~11. 19)가 국립중앙박물관 역사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19세기 학문과 예술분야에서 최고봉에 올랐던 그의 생애와 예술세계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준비되었다.

전시구성으로 1부는 ‘김정희의 생애’로 그의 삶의 모습, 불교와의 인연, 친구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부는 ‘김정희의 학문’에 대하여 중국 학계와의 교류와 금석학, 시문학 연구에 대한 내용이다. 3부는 ‘김정희의 예술세계’로 서예, 회화, 서화평, 인장에 대해 그리고 4부는 ‘김정희 예술의 계승’이란 주제로 그의 서예와 회화의 영향과 후세에 비친 김정희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전시의 부대행사로 큐레이터와의 대화 및 특별 강연회 등이 마련된다. 또한 그의 대표글자를 모형으로 제작하여 관람객이 직접 만지며 추사체의 기세를 느껴볼 수 있는 기회와 추사체 따라쓰기 등의 체험공간이 준비되고 있다. 이번전시는 김정희의 예술세계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원 운영 규정

제정 2006. 10. 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이하 "우리회"라 한다) 정관 제2장을 보완하며 우리회 회원의 입회, 탈퇴 및 예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원가입) ①우리회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 또는 법인으로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법인, 개인으로 한다.

②회원은 회비 납부에 따라 법인 기부회원(천마·금관)과 개인 기부회원(천마·금관·은관·청자·백자), 영구회원, 특별회원, 일반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별 회비 납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한 유물 및 자료 기증자는 기증물에 대하여 평가 심의 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3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4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우리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회원의 탈퇴) ①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제3조 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자의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②회원이 탈퇴할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 (회원의 상벌) ①회원으로서 우리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회원으로서 우리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우리회와 회원들의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예우) 회원예우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8조 (예우기간) ①법인에 대하여는 천마회원 5년, 금관회원 3년, 개인에 대하여는 기부·영구회원 평생, 특별회원 15년, 일반회원 1년으로 한다.

②회원가입일이 6월 이전이면 당해연도말까지, 7월

이후이면 다음연도 말까지 예우기간으로 산정한다.

제9조 (회원카드 발급) ①회원에게는 회원카드를 발급하며 법인 회원에 대하여는 천마회원 5매, 금관회원 3매를 법인 명의로 발급한다. 다만 기부, 영구 및 특별회원에 대하여는 3년마다 갱신 발급한다.

②회원카드의 유효기간은 예우기간 산정방식에 따라 정한다.

③회원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간 사용을 제한한다.

④회원카드 분실시 빠른 시일 내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우 실시 방법) ①별표 기준에 의한 해당 회원이 상설전시실 관람 ('표사는곳'에서 무료입장권발권), 국립중앙박물관 식음료장, 문화상품점, 주차장 이용 및 옹극장 공연 관람 시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법인회원은 법인 명의로 발급된 회원카드를 제시하고 법인 대표자, 이사, 감사 등 임원(신분증제시)에 한하여 예우를 적용한다.

③국립중앙박물관 시설(교육관강의실, 대강당 등에 한함)을 이용하고자 하는 법인회원은 국립중앙박물관과 우리회와의 사전협의 하에 국립중앙박물관 대관규정에 따라 년3회 이내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법인회원의 이미지홍보는 우리회와 협의 하에 '박물관사람들' 회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11조 (의결사항) 회원예우, 회비 등에 관한 중요변경사항과 카드 발급 및 이용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원카드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예우사항변경에 따른 회원카드변경발급사유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하지 않을 경우 2006년 10월 1일 발급되는 회원카드의 유효기간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회원이 되시면

일반회원 : 오만원(연간)

국립중앙박물관 및 지방국립박물관
상설전시실 무료관람
박물관신문 배포
'박물관사람들' 회지 배포
고적답사 및 사회교육 참여
학술강연회 및 발표회 참여
예우기간 : 1년

특별회원 : 칠십만원 이상

일반회원 예우 및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상품점, 식음료장,
극장 용 이용 할인
(박물관 직원과 동일한 할인율 적용)
국외답사참여
예우기간 : 15년

영구회원 : 이백만원 이상 (이하 누적회비)

특별회원 예우 및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무료이용
전시실 특별관람회 초대
소득공제혜택 평생
예우기간 : 평생 (이하 전 회원)

기부회원

백자회원 : 오백만원 이상

영구회원 예우 및 국립중앙박물관 기획특별전 초대
국립중앙박물관 발간 도록 배포
'박물관사람들' 회지 명단 게재

청자회원 : 일천만원 이상

백자회원 예우 및
초대 내·외국인특별안내
국외박물관 관람회 초대
사회교육 수강료 할인
배우자(회원활동) 참여

은관회원 : 삼천만원 이상

청자회원 예우 및 평의원에 준하는 예우
사회교육 수강료 면제

금관회원 : 오천만원 이상

개인 : 은관회원 예우 및 임원에 준하는 예우
'박물관사람들' 회지 소개
법인 : 은관회원 예우 및 국립중앙박물관 시설 이용
'박물관사람들' 회지에 이미지 홍보
예우기간 : 3년

천마회원 : 일 억 원 이상

개인 : 금관회원 예우 및 회원가입 이벤트
법인 : 금관회원 예우 및 회원가입 이벤트
예우기간 : 5년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鐘仁 1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李大源, 金相万, 金聖鎮, 鄭鎮肅, 金榮秀, 俞相玉 회장을 거쳐 2005년 11월 柳昌宗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 柳昌宗
副會長 | 徐載亮 · 吳志哲
理 事 | 金紅男 · 朴仙卿 · 朴亨植 · 申硯均
安聖基 · 李健茂 · 李斗植 · 李仁洙
田永采 · 鄭明勳 · 池健吉 · 崔科南
監 事 | 金義炯 · 鄭建海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 · 특별 · 영구회원
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기부회원은 천마 · 금관 ·
은관 · 청자 · 백자회원으로 나뉜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 · 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의 회비는 천마회원 일억원 이상, 금관회
원 오천만원, 은관회원 삼천만원, 청자회원 일천
만원, 백자회원 오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 법인

■ 금관회원

팬택&큐리텔 朴炳燁
(주)한섬 鄭在鳳
(주)STX 姜德壽

■ 은관회원

(주)종합전기 金鍾漢

» 개인

■ 금관회원

千信一 세종옛돌박물관장

■ 은관회원

俞相玉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柳昌宗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鄭明勳 서울시향 고문
朴容允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 청자회원

趙炳舜 성암고서박물관장
金榮秀 변호사
玄明官 전 삼성물산 회장
愼昌宰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金永珮 김&장 법률사무소
徐載亮 이름지기 이사
田永采 사) 한길봉사회 이사장
胡鍾一 호성흥업회장
申硯均 이름지기 이사장
李雲卿 남양유업 전문위원
韓泰珠 제일화재 이사장
金英惠 삼표산업
李美淑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鄭在昊
李明姬
朴仙卿
李起雄
辛永茂
李仁洙
辛炳讚
朴載蓮
李鈴子
柳芳熙
朴海春

■ 백자회원

李京姬 수필가
洪錫肇 전 광주교감장
李興杓 국립중앙박물관회 직원
金惠蓮 대학강사
崔科南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李健茂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韓載京
柳憲辰
李殷子
정숙희
(주)풍산주택 사장
LG카드 대표

(주)씨큐텍

원고를 받습니다

회지(전시실 산책 · 답사를 다녀와서 · 자원봉사를 하면서 등)에 글을 쓰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200자 원고지 12매 정도)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립니다

한국박물관회의 명칭이 국립중앙박물관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책을 만들면서

마음속 생각은
끝도없이 밀려와
답기에도 벅찬데
세월을 두고 떠나야할
가을 낙엽들의 흔적들이
아련히 그림자를 지운다.(리)

숨막히던 막바지 무더위 속
아들이 전해준 기쁜 소식에
남보다 먼저 청명한 가을을 느끼게 되니
계절도 마음으로부터 오는가 보다.(愛)

하늘의 바람은 이미 서늘하지만
땅은 아직 따뜻하여 열매를 마저 익히는군요.(진)

북한산을 오른다.
한줄기 바람이
소나무향을 실어온다.
아릿한 가슴
이젠, 그리움으로 오른다.(정)

특집을 엮으면
사물을 새롭게 보게된다.
달은 그냥 달이 아니고
다같은 향아리가 아니다.
전혀 다른 달향아리
하나가 있을 뿐이다.(河)

어려웠던 시절을 이기고
고운 모습으로 보이니
한가위 웃는 달과 같이
보이는구려.(水)

발행일 | 2006년 9월 25일

발행처 | 국립중앙박물관회

발행인 | 유창중

기획 | 신병찬

편집위원 | 정미희 · 정혜리 · 조미연 · 조애경 · 진수옥 · 하영남

진행 | 이진성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

140-026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전화 : (02) 2077-9790~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 www.mumes.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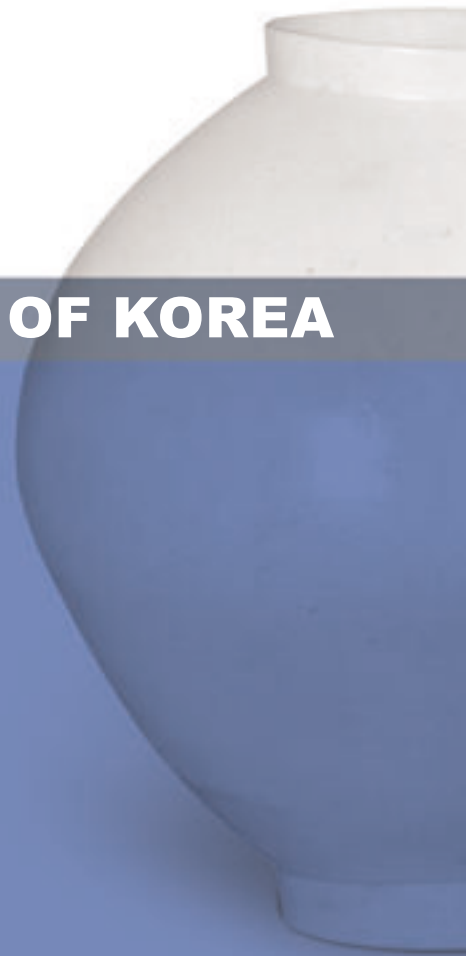
본 회지의 내용은 본 회의 의건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회지를 받아보고 싶은 분은 국립중앙박물관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 표지그림 이야기

백자 달항아리 (18세기 높이 49.0cm 국보 제 262호 우학문화재단 소장)
몸체 지름에 비해 키가 커서 가름한 인상을 주는 항아리이다. 중앙에서 상부와 하부를 접합한 흔적이 확인된다. 입은 비스듬하게 작은 각을 이루며 짧게 솟아 있고, 굽은 수직이다.



국립중앙박물관회는 박물관을 사랑하고 배우고 느끼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박물관 후원사업 · 사회교육 · 자원봉사 · 공익적인 문화사업 등을 합니다.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140-026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168-6, Yongsan-dong 6-ga, Yongsan-gu, Seoul, Korea 140-026

전 화 : (02) 2077-9790-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 www.mumes.org